

# 목장교회 나눔지

2023. 7. 02. 주간

##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5분/온라인모임 3분)

\* 세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나누어 보세요.

1. 최근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는?
2. 해외에서 1년을 생활해야 한다면 살고 싶은 나라는?
3. 이번 여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 장 장맛비 같은 찬양(15분/온라인모임 5분)

텍 음 성 가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지 482장)	찬 송 가	내가 매일 기쁘게 (새찬 191장)
	나의 안에 거하라 (지 6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찬 545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지 465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새찬 302장)
	다 표현 못해도 (지 452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찬 370장)

##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5분/온라인모임 30~40분)

지난 한 주간 지구촌공동체성경읽기, QT(매일성경, 새벽예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Just like Jesus(예수님처럼) 42.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 요한복음 14장 14-31절**  
 서론)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귀어 축제가 열렸다. 이를 두고 신문에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사랑을 앞세웠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라 정의하신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관점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맞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 1. 성령 하나님 -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동행하신다 (16-18, 26)

1)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성령님, 즉 보혜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중재자, 조력자]를 뜻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이다(16절). 동시에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

2)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고, 분별해야 하는 수많은 난제와 씨름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 2. 성자 예수님 -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19-20)

1) 예수님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라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격려하신다(18절). 그리고 부활하신 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다(20절). 이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함께 함을 의미한다.

2)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된다. 무엇보다 그분이 나의 삶에 한복판에 거주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의 삶과 피를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감격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 겸손함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방자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다 사랑이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최고의 사랑의 열매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다.

### 3. 성부 하나님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21-24)

1)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에 오해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계약처럼 치부한다. 또 세상의 사랑은 “이게 바로 자유야, 평등이야, 인권이야”라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신의 유익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사랑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13:1).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 먼저 하였고, 사랑의 진행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사랑의 완성도 주님께서 하신다.

2)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할수록,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위대할지를 알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처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자리로 가보면, 이미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끼어 앉아 주고 계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결론) 세상의 비극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사랑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인간의 자아는 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사물을 내 주관과 내 판단에 의지한다. 내가 느끼는 그 기쁨들을 채우려는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본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지구촌교회 수 백명의 지체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들 예수님의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지구촌공동체 되길 원한다.

